

## 신라 狼山の 歷史性

Historicity of Shilla's Mt. Nangsan (狼山)

---

|                    |   |
|--------------------|---|
| 저자<br>(Authors)    | 주보돈<br>Ju, Bo-don   |
| 출처<br>(Source)     | <a href="#">신라문화 44</a> , 2014.08, 1-27 (27 pages)<br><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4</a> , 2014.08, 1-27 (27 pages) |
| 발행처<br>(Publisher) |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br>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
| URL                |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1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7019</a>             |
| APA Style          | 주보돈 (2014). 신라 狼山の 歷史性. 신라문화, 44, 1-27.   |
| 이용정보<br>(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br>210.178.101.***<br>2020/03/17 17:09 (KST)   |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狼山의 歷史性

주 보 돈\*

<目 次>

- |                   |             |
|-------------------|-------------|
| I. 머리 말           |             |
| II. 신성시된 낭산       | IV. 낭산의 역사성 |
| III. 낭산의 성격과 그 변화 | V. 맺 음 말    |

[국문초록]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두려워하고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자연 숭배 대상의 최상위에는 하늘, 태양이 자리하였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이었다. 산은 높았으므로 하늘과 직접 통교하는 통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산악을 각별히 신성시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라 산악숭배도 이른 시기부터 발달하였으나 체계화된 것은 국가가 발달하면서였다. 특히 중국문화의 수용으로 산악도 크기, 거리, 영향도 등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도 三山과 五岳을 선정하여 제일급의 국가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삼산과 오악의 구체적 대상은 신라의 정치·사회의 발전에 따라 달라졌지만 가장 중시된 것은 경주분지에 자리한 얇은 구릉인 낭산이다. 낭산은 통일 이전에 삼산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오악의 中岳이기도 한 사실을 여기서 밝혔다. 산악숭배는 불교가 수용·공인·정착·확산되면서 이와 굳게 결합해져 갔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후자가 점점 우세해져 마침내 전자는 그 하위로 포섭되어졌을 터이다.

낭산은 신성시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변모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통일 이후 문무왕대에 사천왕사가 완공되어 신라 호국 도량의 본산으로 자리함에 따라 낭산의 성격도 확연히 달라졌다. 낭산 자체가 단순한 산악신앙의 범위를 뛰어넘어 불교적 세계관인 須彌山으로 인식되었다. 낭산 주변에 무덤이나 사찰 등 신앙과 연관된 기념물이 적지 않게 들어서는 것도 그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현장에서 실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은 그를 여지없이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영문초록] Humans are weak existence, and therefore, they were afraid of natural phenomena and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even worshiped them. The sky and the sun were placed at the top in terms of nature worship subject. However, mountains were the subject that affected human life the most, as they are located close to our daily life. People had a belief that a mountain is the passage to enter into a friendly relation with the sky, since the sky is high. For this reason, people held mountains sacred and worshiped the mountains.

Although, mountain worship in Shilla was developed at early stage, the systematization of mountain worship began, after nation started to develop. Due to the acceptance of Chinese culture, a mountain was rated, according to its size, distance and effect. Although its is unclear since when, Shilla selected three major mountains (三山) and five major peaks (五岳), and targeted them for the first class national ancestral rites. Even though, specific subjects of the major three mountains and five major peaks differed, according to Shilla's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ly regarded was Mt. Nangsan, low hill located in the Gyeongju basin. This study reveals that Mt. Nangsan was the center of three major mountains and also central peak (中岳) of the five major peaks before Unified Shilla. Mountain worship was solidly combined with Buddhism, as Buddhism was accepted, recognized, established and diffused. In such a process, Buddhism gradually became dominant, and mountain worship probably became subordinate to Buddhism.

Since Mt. Nangsan began to be worshiped, the mountain went through several transformation processes. Especially, Sacheonwang Temple (四天王寺) was completed after unified Shilla, and it placed itself as the head temple of Shilla's patriotic temples, and thus, the status of Mt. Nangsan clearly became different as well. Mt. Nangsan was recognized as Mt. Sumisan (須彌山), which is the Buddhist's view of the world, beyond simple scope of faith in mountains. The reason why many monuments related with faith, such as tombs or temples surrounding Mt. Nangsan, were located is deeply associated with it. The fact that those monuments are easily confirmed at site nowadays proves such an association clearly.

[주제어] 낭산(Mt. Nangsan), 삼산(Three major mountains), 오악(Five major peaks), 수미산(Mt. Sumisan), 사천왕사(Sacheonwang Temple), 호국도량(Patriotic temple)

## I. 머리말

월성에서 동쪽으로 바라다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야산이 남북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를 흔히 狼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별로 크지도 높지도 않다. 그렇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경주분지 안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이어서

눈에 확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지 신라인들도 어느 시점부터 낭산에 대해 각별하게 여겨 주목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낭산 관련 기록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등장함은 그를 여실히 반영해 주는 사실이다. 낭산 자락과 그 주변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조성된 신라의 유력한 사적이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음은 그런 실상을 物證해 주기에 충분하다.

낭산이 학술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당시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三山五嶽學術調查團이 경주 일대 사적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부터였다. 이후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낭산과 그 주변에 대한 체계적 학술조사가 이루어졌고<sup>1)</sup>, 1995년 말에는 낭산만을 전적으로 다룬 학술회의가 열리기까지 하였다<sup>2)</sup>. 이처럼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낭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혀진 상태라 평가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근자에 善德女王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낭산은 이제 일반인의 관심까지 끌기 시작하였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낭산 중턱에 자리한 선덕여왕릉에 대한 탐방이 마치 열풍처럼 번져나가 그와 관련한 행사가 줄줄이 이어졌다. 오래도록 전문 연구자들이나 신라 역사나 문화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애정을 지닌 별난 호사가들만의 방문지에 불과하던 낭산은 어느새 全國民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제 낭산은 경주분지 여행에서 거의 필수적 코스로 자리 잡았기에 이르렀다. 2006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되어 지금껏 진행 중인 四天王寺도 자연 그와 연동하여 커다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낭산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이 높아진 상태이다. 어떻든 신라의 역사, 신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를 지나치게 卽物的으로만 활용하려 한 나머지 혹여나 실제보다 왜곡·과장하여 사실성을 잃게 되거나 앎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겨난다. 근자에 그런 전반적 분위기를 틈타 문화 컨텐츠란 이름을 앞세운 상업성이 고개를 치켜드는 낌새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상적 육성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로 여겨지지만 歷史性을 도외시한 접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는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내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 추세가 지나치게 되면 경주는 자칫 신라의 역사나 문화가 없는, 속빈 강정과 다름없는 짝퉁의 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를 일이

1)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新羅狼山 遺蹟調査』, 1985.

2) 慶州市·新羅文化宣揚會, 『新羅와 狼山』, 1996.

기 때문이다. 혹여 미구에 닥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해 내려면 모조록 철저히하고 착실한 학술적 접근을 통해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어 자리잡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음이 올바른 길이겠다.

그동안 진행된 낭산 관련 연구를 일별하면 고고학적, 미술사학적, 불교적, 설화적 접근은 꽤나 이루어진 편이나 순수한 역사학적 접근은 의외로 未盡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 여러 시각에서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 관련 문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가 선행됨이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기왕에 극히 단편적으로만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을 따름이다. 이로 말미암아 낭산의 역사상은 아직껏 선명하게 노출되지 못한 상태라 진단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여기서는 그런 실상을 줄곧 염두에 두면서 낭산이 처음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변화를 겪어가게 되는 과정과 배경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낭산이 갖는 위상과 성격은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사회적 상황 여하에 따라 달라져 갔던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낭산의 역사성을 잠시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 II. 신성시된 낭산

낭산 주변을 대충 둘러보면 여기저기 수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함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왕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유적의 흔적까지 찾아낼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찰이나 무덤 等屬들이다. 기록상으로도 당시 신앙의 대상이었던 숲(神遊林)이 유난스레 낭산 남쪽 자락에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들을 한데 엮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낭산 자체는 신라 사람들에게서 죽음, 사후세계, 신앙 등과 관련하여 매우 신성시된 공간이었음을 쉬이 느낄 수가 있다.

이들 문화 유적의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낭산은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신앙이나 세계관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융합적 성격을 띠었음이 드러난다. 다만 그것이 일시에 조성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면 이는 곧 낭산의 기본적 성격이 변화를 겪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여하튼 낭산이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오래도록 간직해 나갔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낭산이 언제부터 신성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계기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언제 어떤 성격으로 바뀌어져 갔을까 등등은 매우 궁금하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낭산이 신성한 공간으로 등장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은 각 별히 주목해 볼 만하다.

A)12년 가을 8월에 구름이 낭산에서 일어났는데, 바라보니 마치 누각과 같았다. 향기가 가득하여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이는 필시 仙靈이 내려와 노는 것이니, 응당 福地일 터이다’고 하였다.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수목을 베지 못하도록 하였다<sup>3)</sup>.(『三國史記』3 新羅本紀 實聖尼師今條)

이 기사는 실성왕 12년(413)에 벌어진 특정 사건을 다룬 것으로서 낭산과 관련해서 확인되는 구체성을 띤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사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낭산이 어느 날 구름으로 덮여 누각처럼 보이고 향기가 가득 차서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는 異變 현상이 일어난 사실, 실성왕이 그를 바라보고서 신선이 내려와 노는 데서 비롯하였다고 풀이한 사실, 그러고서 앞으로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벌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사실 등이다. 낭산이 신성시되는 배경과 과정을 살피려면 이들 각각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음미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낭산에서 이처럼 신이한 자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떤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변화무쌍한 구름이 만들어낸 조화로 인한 錯視로 말미암아 목격자들이 잠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충분히 있을 직한 일이다. 그것의 실제성 여하는 잠깐 젓혀두고 낭산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명분으로서 제시된 내용이겠다. 그런 내용은 당시부터 내세워졌거나, 아니면 뒷날 낭산이 신성하게 된 결과로서 창작된 내용이 거꾸로 소급·부회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실제로 지금 여기서 자연 현상의 사실성 여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추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작업이겠다.

그 다음은 실성왕이 낭산을 신선이 내려와서 노 福地, 복스러운 땅, 복이 뒤따르는(를) 땅으로 풀이한 점이다. 여기에는 실성왕이 언제인가부터 낭산을 신선이 놀았던 복지, 즉 신성한 구역으로 내세워 그를 추진해 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깃들어 있음이 비쳐진다. 신성 구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명분으로서 앞서의 자연 현상을 일부러 끌어들었던 것이다. 특히 신선이 놀았다고 해석한 점은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이는 나중에 확인되듯이 낭산의 남쪽 끝자락에 지명으로 짐작

3)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十二年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王謂 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되는 의미처럼 ‘神遊林’이라 불린 숲이 조성되었다는<sup>4)</sup> 사실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뒷날 낭산에 신유림이 조성되고 신라인들이 그를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는 사실 자체는 일단 실성왕이 처음에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었음을 뜻한다. 그것은 어쨌든 실성왕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으나 낭산을 신성 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줄곧 기울였고 마침내 원하던 바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낭산에 들어가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낭산이 신성 구역으로 부상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이때부터 임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 사실을 뒤집어서 헤아리면 일단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낭산에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나무를 마음대로 베기도 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달리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낭산이 신성한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성왕의 무단 출입금지 조치와 수목 보호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낭산은 비로소 신성한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셈이 된다. 이 숲이 바로 ‘신이 놀던 숲’이란 의미의 신유림으로서 실성왕이 애초 낭산을 신성시하려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 증거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보면 낭산은 일단 실성왕 12년에 이르러 비로소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때 신선이 놀았던 복지란 주장이 명분으로 제시되었고, 따라서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나무가 우거진 숲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특히 남쪽 자락에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유달리 큰 숲이 형성되었다. 유독 이곳만을 따로 떼어내어 신유림이라고 이름을 붙여 더욱 특별한 신성 공간으로 간주하였던 것 같다. 물론 실성왕의 뜻풀이가 뒷날 신유림이라는 이름에서 거꾸로 붙여진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성왕이 낭산을 신성시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녔고 그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터이다.

이처럼 위의 사료 A)에 근거하는 한 낭산이 신성한 구역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시점은 실성왕 12년 이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가지가 않는다. 이는 실성왕 이전까지는 낭산 뿐만 아니라 신유림도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신성한 구역은 아니었음을 뜻한다. 신라인들은 낭산에 대해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자유자재로 낭산에 출입하였고 나무도 함부로 베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4) 『三國遺事』 紀異2 文虎王法敏條.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은 애초부터 신성시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실성왕 당대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러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몇대로 나무를 베었다는 사실을 내세운 밑바탕에는 그러지 말아야 했다는 뉘앙스도 강하게 풍긴다. 말하자면 원래는 신성시된 공간으로 기능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방치되었다가 실성왕 12년에 이르러서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금 신성한 공간으로 회복시키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것이다. 그런 추정을 보증하여 주는 대목이 소위 前佛時代伽藍 이야기이다.

전불시대가람 이야기는 본래 신라 땅이 석가모니불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부처가 살았던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강조한 설화이다. 이는 신라 영토에 불교의 수용과 공인 이전부터 이미 불교가 존재하였다는 이른바 佛國土 사상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皇龍寺를 창건하면서 바로 이곳이 迦葉佛의 설법 장소였음을 강조한 사실이라거나<sup>5)</sup>, 인도 굽타왕조의 정복군주 아소카(Asoka)왕이 만들려 하다가 실패한 불상의 재료가 과거 전불시대부터 인연이 있던 신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皇龍寺丈六像으로 완성되었다거나 하는 설화<sup>6)</sup> 등이 그런 사정의 일단을 뚜렷이 보여 준다.

불국토 사상은 자장이 당에서 유학하고 귀국하면서 수용·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불교 敎學과 신앙체계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더욱 깊이 뿌리 내려지고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나말 여초 무렵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玉龍集』과 「慈藏傳」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전기 뿐만 아니라 통일기에 세워진<sup>8)</sup> 我道本碑에도<sup>9)</sup>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한 데서 불국토 사상이 퍼진 정도를 유추해낼 수 있다. 결국 불국토 사상은 신라의 불교는 단순히 뒤늦게 전래된 외래종교가 아니라 본디 신라의 고유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서 불교를 널리 弘布시키는데 큰 명분으로 활용되었던 셈이다.

전불시대가람 이야기는 황룡사를 포함하여 신라 왕도의 안 일곱 군데의 저명한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소위 칠처가람터라고 불리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金橋 東의 天鏡林, 三川의 岐(갈림길), 龍宮의 南, 龍宮의 北, 沙川의 尾(끝머

5) 『三國遺事』3 塔像 迦葉佛宴坐席條.

6) 『三國遺事』3 塔像 皇龍寺丈六條.

7) 『三國遺事』3 塔像 迦葉佛宴坐席條.

8) 곽승훈, 『新羅金石文研究』, 한국사학, 2006, p. 23.

9) 『三國遺事』3 興法 阿道基羅條.

리), 神遊林, 婿請田의 일곱 곳이 손꼽히고 있었다<sup>10)</sup>. 이들 일곱 곳에는 각기 불교가 공인된 이후 순차적으로 사찰이 들어섰다. 천경림에는 興輪寺, 세 내(삼천)가 만나는 갈림길에는 永興寺, 용궁의 남에는 황룡사, 용궁의 북에는 芬皇寺, 사천의 끝머리에는 靈妙(靈廟, 零妙)寺, 신유림에는 사천왕사, 서청전에는 曇巖寺가 창건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고부터 중대에 걸쳐서 창건된 절이었다<sup>11)</sup>.

이른바 칠처가람터가 본래부터 유서 깊은 토착신앙과 관련된 곳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한 견해가<sup>12)</sup> 있다. 그 토착신앙은 대체로 삼한 시기에 보이는 蘇塗 신앙 등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일곱 곳 전부를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그 가운데 토착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도 분명히 존재할 터이다. 그 점은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창건 과정을 통해서 뚜렷하게 추론되는 사실이다.

불교를 공인하기 바로 직전인 법흥왕 14년(527) 왕은 천경림의 나무를 벌목하고서 이를 활용하여 그 자리에 흥륜사를 세우려고 기도하였다. 법흥왕과 사전에 상의하여 흥륜사 창건을 추진하고서 현장에서 공사를 주도한 인물은 이미 머리를 깎은 異次頓이었다<sup>13)</sup>. 그 소식을 접하고서 일부 귀족들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흥륜사 창건은 일시 난관에 부딪혔다. 마침내 갈등과 마찰이 해결되고서 불교는 국가종교로 공인되었으며, 흥륜사도 진흥왕 5년(544) 완공되기에<sup>14)</sup> 이르렀다.

흥륜사가 창건되던 초창기에 불교 공인 추진과와 반대파들 사이에 마찰이 크게 빚어졌던 것이다. 흥륜사 창건을 추진하던 쪽을 공인파라 한다면, 기존의 천경림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일파는 반대파로 치환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이는 어쩌면 천경림이 불교 사찰에 대응될 수 있을 정도의 신성시된 공간이었음을 뜻한다. 그와 같은 공간이었기에 신라 최초의 사찰 창건 대상지로 선정되었던 것이겠다. 그런 천경림에다가 불사를 일으키고 그 나무를 棟樑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곧 기존의 토착신앙을 불교로 대체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마침내 불교가 공인되기에 이르거니와 이는 토착신앙이 불교 속으로 흡수·융합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

10) 위와 같음.

11) 일곱 사찰 가운데 담업사의 창건 연대만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이들이 창건 연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담업사는 사천왕사보다 뒤일 것으로 추정된다.

12)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 29 ; 김재경,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연구』, 民族社, 2007, p. 64.

13) 李基白, 위의 논문, pp. 11~12.

14) 『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興王 5年條.

만일 천경림이 토착신앙의 성소로서 신성시되었다면 다른 前佛터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전불시대의 칠처가람터를 분류하면 숲이 둘, 물가(용궁 포함)가 넷, 밭이 하나이다. 이들 모두가 원래 신성구역이었다고 단정지을 결정적 근거는 없다. 일반적으로 토착신앙으로서 중시된 것은 수목신앙으로서의 숲이나 신성한 탄생지, 혹은 龍神신앙으로서 우물 등을 손꼽을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곳은 원래부터 산성시된 공간이었으므로 이후 사원이 들어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다만 서청전은 밭이므로 약간 이상한 측면이 엿보인다. 게다가 다른 6 곳과는 달리 정치적 중심 구역에서 벗어난 데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서청전은 담업사가 五陵의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南川(蚊川)의 남쪽에 자리하였음이 분명하다. 7처가람 가운데 다른 6곳이 모두 남천 북쪽의 정치적 중심 구역에 위치한 것과는 뚜렷이 대조된다. 게다가 밭으로 되어 선뜻 신성시된 공간으로 설정하기가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다만 중고기에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몇몇 大臣들이 모여 회의를 열던 곳으로 설정되어 있던 네 곳의 신령스런 장소(四靈地)<sup>15)</sup> 가운데 皮田이란 이름이 보여 주목된다. 다른 세 곳은 모두 산이지만 유독 피전만이 글자 그대로 밭이다. 어쩌면 숲, 산, 물가, 우물 등과는 달리 뒤늦게 밭도 때로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이를테면 宗廟나 社稷 등에 제수용으로 바칠 작물의 경작지와 관련되거나 혹은 농업의 신과 연결될지도 모른다<sup>16)</sup>. 그런 의미에서 서청전만을 밭이라 하여 꼭 예외적이라 단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여하튼 전불시대 칠처가람터는 불교 수용 이전부터 유서 깊은 신성 구역으로서 토착신앙과 연관된 곳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특히 천경림이 신성되었다면 숲이 무성하다는 측면에서 신유림도 마찬가지로 선상에 놓아도<sup>17)</sup> 좋겠다. 다만 신유림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한문식 지명이 이른

15) 다만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大臣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으로 동 靑松山, 남 弓知山, 서 皮田, 북 金剛山의 4靈地(신령스런 땅이란 뜻)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三國遺事』 紀異1 眞德王條). 3곳은 산이지만 유독 피전 한 곳만이 밭으로 나온다. 밭이 영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이나 곡물의 神, 혹은 제사용의 경작지와 관련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서청전도 오랜 聖所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듯 싶다. 여하튼 전불시대의 일곱 가람터는 모두 불교 수용 이전에 토착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16) 『三國史記』32 祭祀志에는 田과 관련한 제사는 보이지 않는다. 농사와 연관된 先農, 中農, 後農이나 風伯, 雨師, 靈星 등도 谷, 城門 등에서 행해져 논밭과는 무관하다.

17)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p. 130.

시기부터 존재하였을 리가 만무하지만 실성왕 12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성왕 이전에는 다른 명칭이었다가 이때 이후 숲이 크게 조성되면서부터 신유림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공산이 크다

이상과 같이 보면 신유림이 위치한 곳은 전불터라고 인식될 정도로 본래 토착 신앙과 깊이 관련된 聖所였다.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 일시 방치되어 버린 까닭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함부로 나무를 베면서 버려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실성왕대에 이르러서 원상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던 것이다. 그 결과로 성소로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이후 숲이 우거지면서 신유림이라 불리게 된 것이라 하겠다.

원래 토착신앙과 연관된 성소였던 신유림이 폐기된 배경이나 계기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사로국으로부터 신라로의 전환이란 엄청난 정치적 변동, 그 결과로서 部體制의 성립, 고구려의 남정을 불러 온 가야와 倭 연합세력에 의한 王城 함락 사건, 나물계와 실성계의 대립 등 내부 정치적 요인 등등이 혹여 그런 현상과 연관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전반적인 혼란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그에 따른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소였던 신유림을 지켜오던 세력이 몰락하면서 저절로 퇴락의 길을 걸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실성왕이 나물왕계와의 대립·갈등을 겪고서 즉위한 뒤 신유림의 부활, 복원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성왕은 일종의 復古정책 일환으로서 낭산을 신성시하고 그 결과로서 신유림이 조성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신성한 구역도 흔히 정치적 변동과 연동되어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그 점은 앞서 본 천경림이 흥륜사로 바뀐 데서 뚜렷이 확인된다. 이 점은 이후 낭산과 신유림이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데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사실이다.

### Ⅲ. 낭산의 성격과 그 변화

낭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신유림의 변화는 동시에 낭산 자체의 변화까지를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로 인식된 낭산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 신유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낭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실성왕 이후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낭산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선덕여왕의 知幾三

事에서이다. 널리 알려진 세 가지의 기이한 일 가운데 선덕여왕의 무덤 조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설화 속에 낭산의 이름이 보인다. 선덕여왕은 아무런 병이 없었을 때 자신이 사망하게 될 연월일을 미리 摘示하면서 죽은 뒤 忉利天에다가 물어달라는 유언을 하였다. 군신들은 그곳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하여 선덕여왕에게 물었더니 ‘狼山南’이라고 알려 주었다. 과연 지목된 바로 그 날에 여왕이 죽었는데 주어진 유언에 따라서 낭산의 남쪽 자락에 묻었다. 다시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문무왕대에 이르러서 선덕여왕릉의 아래에다가 四天王寺를 짓게 됨으로써 과연 오래전의 예측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불경에는 사천왕천의 위에 도리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8)</sup>.

이 설화는 선덕여왕이 생전에 叡智가 있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실제적 사실과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으리라 추정된다<sup>19)</sup>. 선덕여왕의 왕위 계승 문제는 즉위 당시에는 물론이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선덕여왕 재위 기간에는 정국은 심히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었다<sup>20)</sup>. 유력 귀족세력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마침내 647년 1월 즉위를 겨냥한 毗曇의 반란 사건으로 飛火되기에 이르렀고 당시 병상에 있던 선덕여왕도 그런 와중에 사망하였다. 여왕 즉위의 정당성 및 재위 시에 불안정하게나마 정국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이 다방면에 걸쳐 특별히 강조되었다. 소위 ‘지기삼사’는 그러한 것 가운데 우연히 남아서 전해지는 세 가지의 저명한 사례라 하겠다.

그것은 여하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낭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위의 설화에 따르면 선덕여왕의 재위 시에 낭산을 須彌山으로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차츰 일고 있었음<sup>21)</sup> 보인다. 불경에서는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 위치하고 그 꼭대기에 忉利天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그 자체가 사실일 리 만무하지만 일단 낭산을 수미산으로 여기려는 의식의 씨앗에 배태되고 있었음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선덕여왕의 예지는 그 점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의식이 부상해 가던 상황 속에서 선덕여왕이 낭산에 묻힌 것이다. 이는 낭산

18) 『三國遺事』 紀異1 善德王 知幾三事條.

19) 辛鍾遠,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 가지 問題」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p.55.

20) 朱甫噉,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 참조.

21) 辛鍾遠은 구체적으로 선덕여왕 4년 安畝이란 승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p. 56).

자체의 근본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낭산이 불교식의 수미산으로 바뀐 인식이 완전하게 정착하는 것은 물론 문무왕대 사천왕사가 창건되면서였겠지만<sup>22)</sup> 그 변화의 출발은 바로 선덕여왕대였으며, 그것이 무덤 조영을 통하여 실제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낭산에 대한 인식은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낭산에 대한 인식이 불교와 연관되어 새롭게 탈바꿈하는 조짐이 일어난 것은 中古 후반기였다. 그를 방증하여 주는 것이 낭산의 동편 밑쪽 자락에 바로 붙어 있는 皇福寺란 사찰이 이 무렵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황복사 창건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625년 출생한 의상이 29세에 거기에서 출가하였다는데<sup>23)</sup> 이때가 眞德王 7년(653)의 일이다. 이를 근거로 삼아 황복사가 이때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sup>24)</sup> 이는 어디까지나 그 하한일 따름이므로 실제 창건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sup>25)</sup> 봄이 온당하다.

그런데 황복사란 寺名은 대단히 흥미를 끈다. ‘황’이란 단어는 임금, 황제의 뜻이다. 사찰에 皇이란 글자를 사용한 최초는 皇龍寺이다. 절을 짓고자 한 용궁의 남쪽 바로 그곳에 黃龍이 나타났으므로 원래는 黃龍寺라 이름 하였다<sup>26)</sup>. 이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 黃과 皇은 같이 발음되고, 또 황색은 오방색 가운데 중앙, 곧 황제를 상징하므로 그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皇龍寺로 고쳐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 창건 이후 ‘皇’ 자를 넣은 사찰로서 확인되는 것은 芬皇寺이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634) 창건되었는데<sup>27)</sup> ‘芬’이 향기롭다는 뜻으로서 당시의 여왕을 상징한 사찰임이 분명하다. 선덕여왕대에는 전례 없이 많은 사찰을 건립하거나<sup>28)</sup> 여왕과 관련이 깊은 곳에 ‘황’자를 넣게 된 것은 ‘성스러운 조상(성골) 황제

---

22) 사천왕사의 창건이 시작된 것은 『三國遺事』 紀異2 文虎王法敏條에 따르면 670년 무렵의 일이지만 완성된 것은 679년에 이르러서였다(『三國史記』7 신라본기 文武王 19年條).

23) 『三國遺事』4 義解 義湘傳教條.

24) 金福順, 「義湘과 皇福寺」,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p.147.

25) 李仁哲, 「신라 上代の 佛寺造營과 그 社會·經濟的 基盤」, 『白山學報』, 52, 1999 ; 『신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pp. 44~45.

26) 『三國遺事』3 塔像 皇龍寺丈六條.

27) 『三國史記』5 新羅本紀 善德王 3年條.

28) 李仁哲, 앞의 책에 의하면(p. 222) 선덕여왕대에 창건된 사찰로 사명이 확인되는 것은 25개라고 한다. 신라사 전체를 통틀어 현재 26개로 확인된 景德王대(p. 231) 다음으로 많은 수치에 해당한다.

할머니'란 뜻의 聖祖皇姑란 칭호와<sup>29)</sup>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호칭은 선덕여왕이 즉위하자마자 국민들이 그렇게 높여서 부른 것이었다. 상당한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므로 축하 용도로 그런 호칭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분황사란 사명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도 하등 이상스럽지가 않다. 어쩌면 황복사의 '황'도 그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황을 넣은 사찰명은 보이지 않으므로 오로지 중고기에만 한정하여 '황'이란 글자를 붙인 사명을<sup>30)</sup> 사용하였던 것 같다.

한편 황복사에서 '福'이란 글자의 사용 사실도 각별히 눈에 들어온다. 실성왕대부터 낭산을 복지로 여겨서 신성시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낭산의 밑자락에 굳이 사찰을 조영하면서 '복'을 사명에다 붙인 것은 그곳이 福地로 인식되던 사정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낭산 아래에다가 처음으로 절을 지으면서 '福'자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낭산이 복지란 사실과 직결되고 나아가 신라 황실의 복과 실제로 이어지기를 바란 결과로 풀이된다. 낭산이 것처럼 복지로 여겨졌기에 선덕여왕도 거기에 묻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황복사는 선덕여왕대에 세워진 사찰로서 낭산을 신성시하여 온 연장선상에서 바로 그 아래에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낭산은 이제 황복사 건립을 계기로 수미산으로 인식될 발판이 마련되었고 나아가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선덕여왕릉이 조영되면서 그를 구체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선덕여왕대에 이르러 낭산에 대한 인식이 수미산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곧 이때도 여전히 신성시되고 있던 데서 말미암는 것이다. 이는 낭산이 실성왕 이후 계속적으로 신성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성소로서의 낭산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에 그를 바탕으로 새롭게 수미산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행해졌던 것이다. 만약 낭산이 실성왕 이후의 어느 무렵에 이르러 世人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면 선덕여왕대에 갑작스레 그를 수미산으로 바꾸고자 한 시도는 매우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미 신성한 곳으로 의식되어

29) 『三國史記』5 新羅本紀 善德王 卽位年條.

30) 『三國遺事』紀異2 文虎王法敏條에 황룡사 가까이에 皇聖寺란 절 이름이 보이지만 달리 기록이 없으므로 창건 시점은 알 수 없다. 문무왕대를 하한으로 하므로 그 이전에 창건되었음이 분명한데, 분황사나 황복사의 사례로 미루어 선덕여왕 때일 가능성이 크다. 中代에 국가에서 운영한 핵심적 사원인 7개의 成典寺院에 '皇'이 붙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글자를 사용한 사찰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어쩌면 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통일 이후에는 '皇'을 함부로 사찰 이름으로 사용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왔기에 황복사가 들어서고 선덕여왕이 거기에 문힘으로써 생전과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겼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래도록 신라 지배층 무덤의 밀집지대인 대릉원에 왕릉도 함께 조영되다가 540년 법흥왕이 사망하자 왕릉만은<sup>31)</sup> 그런 집단 墓域을 벗어나 신성시된 西岳의 자락에 따로 조영된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거기에는 어떤 인식상의 중대한 변화가 담겨져 있다.

여하튼 낭산은 실성왕 이후 줄곧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져 온 까닭에 그 자락에 선덕여왕릉이 조영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성시되어온 낭산 자체의 성격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음을 뜻한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숭앙의 대상으로 삼아온 낭산에 이제는 무덤이 조영되었기 때문이다. 낭산은 동일하게 신성 공간이기는 하였으며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바뀌었으니 바로 수미산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낭산은 어떤 상태에서 신성시되어 왔던가가 문제로 부각된다.

실성왕 12년 낭산이 새롭게 신성시되기 시작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 이후 선덕왕대까지의 향방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통일기에 이르러 정리된 제사체계 속에 낭산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신라는 통일기에 宗廟와 社稷을 비롯한 시조묘, 신궁 등 조상숭배와 관련된 제사와는 별개로 늘어난 영토 내에 있는 산천을 대상으로 대·중·소사의 3단계로 등급 구분지어<sup>32)</sup>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제사체계는 당의 貞觀禮를 모방하면서도 나름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sup>33)</sup> 한다.

그 가운데 왕경을 중심으로 하는 3산을 最高의 제사인 大祀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산은 奈歷(習比部), 骨火(切也山郡), 穴禮(大城郡)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왕경 내에 있는 것은 나력(奈林이라고도 함) 뿐이며 그 나머지 둘은 왕경의 바깥에 위치한다.

나력의 위치가 어딘지를 둘러싸고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여러 정황상 낭산으로 비정함이 일반적이다. 3산의 중심으로서 왕도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낭산의 狼과 나력의 奈가 발음이 상통한다는 사실도 참고가 된다. 낭산은 한문식 명칭이므로 원래부터 그렇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뒷날 지명 전반이 한문식으로 정착되면서 그렇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고로 신성시되던 산의 이름에다가 처음부터 맹수인 ‘이리(狼)’란 글자를 붙였을 가능성은<sup>34)</sup> 지극히 낮기 때문

31) 『三國史記』4 新羅本紀 法興王 27年條.

32)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p. 44.

33) 尹善泰,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新羅 金石文의 현황과 과제』(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23), 2002, pp. 107~108.

이다. 따라서 원래의 이름은 나력이라고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시조신의 탄생지를 奈乙(蘿井)이라 부르고, 거기에 神宮을 설치한 사실에서<sup>35)</sup> 여실히 드러나듯이 신성한 탄생의 의미를 간직한 ‘奈’란 단어도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된 낭산에 대단히 어울린다. 그러므로 나력을 낭산에다 비정하여도 그리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 싶다<sup>36)</sup>.

3산은 왕경과 그를 둘러싼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3산 가운데서도 핵심은 역시 왕경 내에 자리한 나력이었다. 나력을 제외한 골화와 혈례 두 곳은 왕경의 외곽에 위치하면서 그를 수호하는 데 보좌적 기능을 담당한 곳으로 보인다. 아마도 원래 이곳의 독립된 정치세력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로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치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된 탓에 산악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던 공간을 그대로 신라의 신성한 그것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3산의 설정은 초기 신라의 영역 범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핵심인 나력도 늦어도 이 시기에 이미 신성하게 여겨진 대상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삼국사기』 제사지의 기록에 의거하여 5악과 함께 3산은 통일기에 이르러서 당제의 영향 아래 제사체계의 전면적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양자는 이미 그 이전에도 존재한 뚜렷한 흔적이 확인된다. 삼국통일 元勳의 한 사람인 金庾信이 화랑으로 활동하던 시절 고구려 첩자 白石의 꼬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3산의 세 여신이 나타나 구원해 줌으로서 그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sup>37)</sup> 한다. 이를 통일기의 3산 신앙이 소급된 것으로 보아 통일 이전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도<sup>38)</sup> 있으나 3산이 그때에 있었다고 보아도<sup>39)</sup> 그리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 백제의 경우에도<sup>40)</sup> 이미 멸망 이전에

34) 낭산의 유래를 이리 모양으로 생긴 데서 연유하였다는 견해, 이리가 많이 살았던 데서 비롯하였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이는 한갓 뒷날이 붙여진 것임이 명백하다.

35) 『三國史記』3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9年條.

36) 그런 측면에서 나력을 나림이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나’가 낭산을 지칭하고 이 름이 글자 그대로 숲을 의미한다면 나림은 그 자체 신유림을 뜻한다고 풀이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원래는 나력이라 하였다가 상당한 숲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나림이라고 부르다가 한문식으로 신유림이라 미화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낭산 가운데 가장 중심은 역시 신유림이라고 함이 적절하겠다. 낭산 가운데서도 가장 신성시한 신유림의 바로 위가 선덕여왕의 무덤을 조영하였으므로 이것이 곧 신유림의 근본적 성격을 바꾼 사실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여도 무방한 일이다.

37) 『三國遺事』紀異1 金庾信條.

38) 洪淳昶,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 民俗의 新研究』(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4), 1983, pp. 42~43.

3산이 존재하였음이 거의 확실한 것도<sup>41)</sup> 신라의 그것을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된다.

3산 뿐만 아니라 5악도 통일 이전부터 그 존재가 뚜렷이 확인된다. 중악은 보이지 않지만<sup>42)</sup> 동악은 吐舍山, 서악은 仙桃山, 남악은 舍月山, 북악은 金剛山으로 나타난다<sup>43)</sup>. 이들은 모두 왕경을 에워싸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도 3산과 마찬가지로 5악이 존재하였음이<sup>44)</sup> 확실한데<sup>45)</sup> 다만 그 명칭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대상이 달라졌다.

이상과 같이 보면 통일 이전 이미 3산과 5악이 존재하였다. 통일 이후 늘어난 영토에 맞춘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물 신앙에 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졌다. 다만 3산은 대상도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5악의 구체적 대상은 바뀌었다. 동악은 토함산(大城郡), 남악은 地理山(靑州), 서악은 鷄龍山(熊川州), 북악은 太伯山(奈已郡), 중악은 父岳(一云公山, 押督郡)이었다. 동악만이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짐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통일 이전의 오악 가운데 중악의 존재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 이후 3산과 5악이 정리된 뒤 남은 산악을 대상으로 왕도에다가 4악을 설정하였다고 본 견해도<sup>46)</sup>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통일 이전에도 5악은 존재하였다. 이들은 모두 왕경에서 올려다 보이는 주변의 높은 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5악의 핵심인 중악은 지리적으로 왕경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그럴 때 위치상 중악으로 손꼽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언뜻 낭산이 떠오른다. 낭산은 사방을 에워싼 왕경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중악으로 비정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적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낭산을 통일 이전 중악의 대상으로 파악할 때 부닥치는 문제는 그것이 삼산의 하나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3산과 5악이 모두 왕경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또 체계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3산과 5악의 중핵이 같았다고 하여도 하등 이상스러운 바가 없다. 뒷날의 기록이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39)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6, p. 206.

40) 『三國遺事』 紀異2 南扶餘前百濟北扶餘條.

41) 盧重國,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pp. 531~532.

42) 다만 『三國史記』 41 列傳(上) 金庾信傳에는 중고기에 중악이란 명칭이 등장한다. 그것을 현재 八公山에 비정하는 한 이는 후대의 부회로 봄이 적절하다.

43) 『新增東國輿地勝覽』 21 慶州府條.

44) 『三國遺事』 感通 仙桃聖母隨喜佛事條.

45) 李基白, 앞의 논문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참조.

46) 洪淳禔, 앞의 논문, p. 47.

낭산을 鎭山이라고 한 데서 그런 상황이 유추된다. 말하자면 낭산은 통일 이전에는 3산 가운데 핵심이면서 동시에 5악의 중악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고기에 이르기까지 낭산이 그만큼 중요시되었음을 증명하여 준다고 하겠다. 불교가 융성해져 가던 중고기 말 선덕여왕대에 낭산을 불교적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이라 여긴 의식이 나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낭산은 3산과 5악의 중심이며 마침내 수미산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 비중이 엄청나게 컸던 것이다.

통일 이후 3산은 그대로였던 반면 5악은 그 대상이 바뀌어 소백산맥으로까지 넓혀졌다. 왕경 내에 있다가 그 바깥, 즉 3산의 바깥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에 따라 자연히 중악은 새로이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3산과 5악이 핵심인 낭산을 매개고리로 해서 하나로 맞물려 운영되다가 통일 이후 분리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낭산도 여전히 3산 가운데 핵심이면서 대신 불교식 수미산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통일 이전의 3산 5악과 통일 이후의 3산 5악은 성격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겠다.

#### IV. 낭산의 역사성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3산, 그 가운데 특히 낭산은 통일 이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신성한 공간으로서 매우 중시되었다. 그러나 낭산에 내재된 근본 성격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낭산은 선덕여왕의 유해가 묻힌 사건을 계기로 성격이 차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호국의 중심지 3산의 신이 모두 女神이었음은 각별히 주목되는 사실이다<sup>47)</sup>. 어쩌면 선덕여왕이 낭산을 자신의 葬地로 선택한 현실적 명분도 거기에 두지 않았을까 싶다. 선덕여왕은 죽어서도 외환으로부터 나라 지키기를 바랐고, 그래서 낭산에 묻도록 유언하면서 그 지킴이가 여신이라는 데에서 명분을 찾았던 것이다. 일종의 동일체 의식이었다. 낭산은 원래 토착신앙과 관련되지만 선덕여왕대에 이르러서 점점 불교식의 수미산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 사실상의 첫 햇불을 선덕여왕이 올렸던 셈이다. 이로써 낭산은 과거의 토착신앙 중심지에서 이제 불교와 결합한 복합적 공간으로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이는 곧 토착신앙이 점진적 과정을 거쳐 불교로 대체되어 가던 양상을 반영해 준다.

선덕여왕은 來世에서 영원토록 낭산에 머물면서 신라를 수호하고 안녕을 지키

47) 『三國遺事』紀異1 金庾信條.

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스스로가 신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 관념을 지녔을지도 모른다. 그의 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시된 탓도 작용하였겠지만 재위 중인 642년 백제의 공격을 받아 낙동강 이서 지역이 일거에 상실되는 등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에 소위 ‘女主不能善理’, 즉 女王無能論의 여론이 팽배해졌다. 이로 말미암아 선덕여왕은 외환의 일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겨 그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였다.

선덕여왕은 당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643년 당으로부터 갖 귀국한 慈藏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시 호국의 중심 도량이었던 황룡사에다가 9층목탑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탑의 건립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는 분열된 여론을 결집하고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대외적 위기를 벗어나고자 염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위 중 9층목탑은 완공되었으나 원래 희망한 대내외적 안정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등 비담이 그를 기화로 삼아 647년 자신의 즉위를 목표로 반란을 일으켰다. 선덕여왕은 내란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바로 얼마 뒤 비담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선덕여왕은 사망에 즈음하여 죽은 뒤에라도 신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환을 지켜내려면 왕궁과 가장 가까운 낭산에다가 영원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이로써 낭산은 선덕여왕의 무덤이 조성된 뒤 점점 신라의 호국 중심지로 정착해 갔던 것이다.

기실 낭산이 호국의 중핵으로 부상해 간 직접적 계기는 唐과의 싸움을 치르면서였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그 땅과 함께 백제의 옛 영토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서 연합하여 왔던 신라와 당의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끝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아 갔다. 670년 전후 무렵부터 당은 고구려와 백제의 옛 영토를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신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당에 유학 중이던 승려 義湘은 金仁問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 670년 급거 귀국하여 본국에 알렸다. 당의 침공에 관한 첩보를 접한 문무왕은 그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서 유가승 明朗이 제시한 秘法을 받아들였다. 명랑은 낭산의 남쪽 기슭인 신유림에다가 사천왕사를 창건해서 호국의 중심 도량으로 삼도록 건의하였던 것이다.

사원 창건 작업이 채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당병이 공격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명랑은 긴급하게 12명의 유가승과 함께 彩帛으로서 임시로 절을 만들고 풀로서 五方의 신상을 꾸려놓고서 文豆糞秘法을 지었다. 그러자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신라군과 미처 본격적으로 접전하기도 전에 갑자기 풍량이 크게 일어 당의 軍船이 모두 침몰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후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sup>48)</sup>. 문두루비법, 즉 임시로 만든 사천왕사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 것이었다. 당과의 전쟁이 모두 마무리된 뒤인 679년에 이르러서 사천왕사는 제대로 모습을 갖춘 정식 사찰로 창건되었다<sup>49)</sup>.

사실 사천왕사가 완공되던 무렵 신라는 대내외적 위기를 거의 극복한 상태였다. 이로써 사천왕사는 명실상부한 호국사찰로서 굳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단초가 마련된 것은 선덕여왕의 무덤이 조영되던 때였다. 토착신앙의 중심지에 불교 사찰이 들어선 것은 이제 후자가 한층 우위에 섰음을 입증한 셈이었다. 이로써 낭산은 단순한 토착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 불교의 수미산으로서, 사천왕사는 호국의 핵심 도량, 즉 불국토인 신라를 지켜내는 중심 사찰로서 자리 잡았다. 호국의 중심 도량으로서의 사천왕사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神文王代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676년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은 통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가던 도중에 사망하였다. 문무왕은 임종에 직면해 태자인 神文王에게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전반적 정책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에 덧붙여서 자신의 유해를 西國式(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장례를 크게 간소화 하도록 간곡히 당부해 두었다<sup>50)</sup>. 신라 공식적 火葬制의 효시였다.

문무왕은 화장을 유언하면서 특히 ‘사후 10일이 지나 庫門의 바깥 뜰(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이라 하여 장례의 방법은 물론 시점과 함께 장소까지도 지정해 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는 화장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보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sup>51)</sup>. 심지어는 화장한 유해를 동해 연안의 큰 바위에 묻도록 유언하였다<sup>52)</sup>. 문무왕은 평소에도 측근인 智義法師에게 죽은 뒤 호국의 大龍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sup>53)</sup> 공언하였다고 한다. 생전에도 불법을 받들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곤 하였던 것이다. 문무왕이 불법과 나라를 지켜내려는 중심 도량으로 삼은 것이 바로 사천왕사였음은 물론이다. 이 점은 사천왕사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통하여 헤아려지는 사실이다.

문무왕은 살아 있을 때 佛力을 빌어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의도로 동해 바닷가

48) 『三國遺事』 紀異2 文虎王法敏條.

49) 『三國史記』7 新羅本紀 文武王 19年條.

50) 『三國史記』7 新羅本紀 文武王 21年條.

51) 물론 화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문무왕이 이처럼 화장과 관련하여 실천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다른 통일정책도 철저하게 실천하라는 당부에서였다.

52) 『三國遺事』 紀異2 文虎王法敏條 및 萬波息箇條.

53) 위와 같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에다가 感恩寺 창건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무왕은 미처 완공을 보기도 전에 사망함으로써 뜻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뒤를 이은 신문왕은 즉위 2년(682)에 감은사를 완공하였다. 화장한 문무왕의 유해를 대왕암에 안치한 뒤 행한 장례의 최종적 마무리 작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감은사는 문무왕의 원찰로 기능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처럼 문무왕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두 사찰이 동시에 주목된다. 하나는 사천왕사이며, 다른 하나는 감은사이다. 사천왕사는 당과의 싸움, 감은사는 바다로부터倭의 침입을 막기 위한 염원을 담아 지은 전형적인 호국사찰이었다. 다만 감은사는 왕경이 아닌 변두리 지역에 두어진 점, 왜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천왕사와는 차이가 난다<sup>54)</sup>. 그렇지만 감은사와 사천왕사는 별개로 운용된 것이 아니라 문무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연동하여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점은 일단 문무왕의 사후 치룬 장례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문무왕은 자신의 屍身을 ‘庫門 밖의 뜰’에서 화장하도록 유언하였다. 그럴 때 庫門의 위치가 문제로 된다. 막연히 庫門이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성을 띄지 않아 어디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문은 글자 그대로 단순히 창고의 문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국왕의 火葬터 위치를 나타내므로 그보다는 왕궁과 관련한 문을 지칭한다고 봄이 옳을 듯싶다.

『周禮』에 따르면 제후 宮의 경우 3문 가운데 가장 바깥의 문을 의미하며, 천자의 경우 路, 應, 雉, 庫, 臯의 다섯 문 가운데 바깥으로부터 둘째 문을 가리킨다고 한다. 신라의 경우 당시의 정치적 · 외교적 정황으로 미루어 전자처럼 제후에 해당하는 왕궁의 가장 바깥쪽 문이라 풀이함이 적절할 듯싶다. 특히 東宮이 창건되던 문무왕 19년(679) 바로 그해에 처음으로 내외 모든 문의 額號를 정한 사실에 비추어서도<sup>55)</sup> 그러하다. 아마도 신라에서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제후 왕의 수준에 준해서 왕궁의 가장 바깥 출입구 문을 고문이라고 지칭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고문이 왕궁의 가장 바깥문을 가리키는 분명하지만 화장터인 ‘庫門外庭’이 문 바로 바깥의 앞뜰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막연히 바깥으로부터 좀 떨어진 뜰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1960년대의 삼산오악학술조사단에서는 낭산 자락이며, 사천왕사로부터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인 현재의 陵旨(只)塔을 화장터로 비정하였으며<sup>56)</sup>,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그곳에다가 원상을 추정하여 복원해 둔 상태

54) 이러한 차이로 뒷날 감은사는 成典寺院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5) 『三國史記』7 新羅本紀 文武王 19年條.

56) 黃壽永, 「新羅 狼山の 陵旨塔에 대하여」, 『新羅와 狼山』(신라문화학회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p. 74.

이다.

사실 능지탑을 화장터로 비정할 만한 약간의 근거는 ‘고문의 바깥 뜰’이라는 사실에 대한 해석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능지탑의 복원도 또한 문제이다. 복원 모델을 인도의 산치 대탑에서 구하였던 것 같은데<sup>57)</sup>, 이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전혀 납득하기가 힘들다. 능지탑의 복원에 사용하고 난 뒤 石材가 많이 남게 되었다는 데서도 그러려니와 그에 활용된 12지신상이 새겨진 석물의 제작 시점은 능지탑 조성 추정 시점과도 동떨어져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데서 복원의 잘못은 여실히 드러난다. 지금껏 행해진 수많은 문화재 복원 사례 가운데 잘못의 전형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sup>58)</sup>. 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격조차 새롭게 철저히 구명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남겨진 상태이다<sup>59)</sup>. 여하튼 문무왕의 화장터를 확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능지탑도 일말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단히 박약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사실 문무왕의 화장터로 비정하려면 그의 죽음 및 사후 세계와 일정하게 연관된 사실이 있는 곳을 주목해야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다. 그럴 때 눈여겨볼 만한 대상은 文武王陵碑의 존재이다. (능)묘비는 당자의 생전은 물론 죽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라에서는 통일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능)묘비 문화가 수용되거나 처음부터 龜趺와 螭首가 딸린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데에 특징이 찾아진다. 그 최초이자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太宗武烈王陵碑를 손꼽을 수 있다. 이후 7세기 말 金庾信碑, 金仁問碑가 세워진 데서도 드러나듯이 왕릉만이 아니라 유력한 귀족들의 묘지에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형식을 갖춘 비가 세워졌다. 물론 그렇다고 (능)묘비가 모든 무덤마다 전부 다 세워졌던 것은 아니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되었다<sup>60)</sup>.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어 (능)묘비를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무왕릉비의 경우 현재 파손되어 완형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서진 2점의 큰 조각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 18세기 후반 사천왕사 근처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이후 오래도록 종적을 감추었다가 하나는 1961년, 다른 하나는 2009년 재발견

57) 黃壽永, 위의 논문, p. 75.

58) 姜友邦, 「陵旨塔 四方佛 塑造像의 考察」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참조.

59) 姜友邦, 위의 논문.

60) 朱甫墩, 「통일신라의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木簡과 文字』9, 2012, pp. 46~56 참조.

됨으로써 주목을 끈 바 있다. 문무왕릉비가 본래 위치하였던 곳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사천왕사에 남아 있는 東西 2점의 귀부 가운데 서쪽 편이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현재 비의 단편 하단부를 그곳의 귀부에 끼워 맞춰본 결과 딱 들어맞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sup>61)</sup>. 이로써 문무왕릉비가 애초 사천왕사 입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최근 동편 귀부 부근의 발굴을 통하여 사천왕사의 사적비로 추정되는 제법 큰 비편이 다시 출토되었다. 과거 부근에서 수습된 2점의 비편은 이미 사적비 일부라 추정된 바 있으나 이번의 정식 발굴로 동쪽의 귀부는 사적비가 세워진 곳이었음이 거의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사천왕사 앞에 남아 있는 2점의 귀부는 동쪽이 사천왕사 사적비, 서쪽이 문무왕릉비의 그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문무왕릉비가 사천왕사 입구에 사적비와 나란히 세워진 것은 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sup>62)</sup>. 문무왕릉비는 일반적 관례에 비추어 보면 차라리 감은사지에 세워져야 함이 마땅하겠다. 비문의 冒頭에 ‘新羅文武王陵之碑’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그것이 능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덤이 아닌 사찰의 입구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상스럽기 그지없다. 사천왕사가 문무왕이 창건한 사찰로서 당면한 당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한 호국사찰로서 세워졌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왜 그곳에 하필 사적비와 나란히 능비가 세워진 것인지는 검토되어 마땅한 문제이다.

사실 능비가 죽음을 비롯한 사후의 사정과 관련됨을 고려하면 사천왕사지는 문무왕의 화장터일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sup>63)</sup>. 능비가 하필 사천왕사 입구에 세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의 시신을 화장하면서 특정 사찰의 경역 내 혹은 바로 앞에서 거행한 實例도 여럿 보이므로<sup>64)</sup> 문무왕과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천왕사 부근에서 화장하였다고 하여 조금도 이상할 바는 없다. 그곳이 ‘庫門外庭’이라고 밝힌 사실과도 그리 어긋나지가 않는다. 아마도 문무왕이 유언으로서 그렇게 지시하였지만 그를 집행한 신문왕은 바로 직전 완공한 사천왕사 앞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그렇게 추진하였을 공산

61) 洪思俊, 「新羅文武王陵碑斷碑追記」, 『考古美術』3-9호, 1962.

62) 이상하게도 그런 사례는 또 皇福寺에서 찾아진다. 둘 다 낭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밖에 달리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63) 今西龍,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新羅史研究』, 圖書刊行會, 1933, p. 413 ; 김상현, 앞의 논문, p. 143 ; 朱甫暎, 앞의 논문(2012), p. 54.

64)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국왕을 화장한 사례는 많지만 그 중 사찰과 관련된 곳으로는 元聖王, 孝成王, 孝恭王, 景明王 등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 크다<sup>65)</sup>.

이상과 같이 보면 신라 사람들은 문무왕의 魄이 동해의 바다 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지만 그 魂은 차라리 사천왕사와 관련한 낭산 즉 수미산, 혹은 그 입구에 해당하는 사천왕사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문무왕의 혼은 언제나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이 金庾信과 힘을 합쳐 달성한 통합의 신라 왕조를 영원히 지켜내기 위한 호국의 신으로서<sup>66)</sup> 역할하려 한 것이었다. 그런 점은 사천왕사가 이른바 成典寺院의 首位로서 기능한 데서도 보강되는 사실이다.

통일 이전에는 皇龍寺가 줄곧 신라 호국불교의 중심지로<sup>67)</sup> 기능하였다. 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9층 목탑을 세우려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통일 이후 황룡사의 위상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크게 달라졌다. 황룡사에 집중되어 있던 역할과 기능은 여러 성전사원으로 차츰 분산되어졌다. 이는 특별한 사찰에만 힘이 쏠리는 집중 현상을 회피하고자 한 중대 정권의 불교 통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룡사가 비대화함으로써 지나치게 불교가 정치와 유착관계를 낳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 한 조치였던<sup>68)</sup> 것 같다.

통일 이후 황룡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전사원으로 지정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sup>69)</sup>. 그에 대신하여 부상한 것이 여러 成典寺院들이었다. 성전사원들이 국가사찰로서 호국적 기능을 분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sup>70)</sup> 7개의 성전사원 가운데 사천왕사는 각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관원의 구성으로 보면 성전사원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거니와 그 가운데 구성으로 볼 때 사천왕사만은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sup>71)</sup>. 이는 통일기 동안

65) 기왕에 능지탑으로 비정한 입장은 ‘庫門外庭’의 방향에 집착하여 사천왕사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지정한 것은 문무왕의 유언을 통해서이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신문왕이란 사실이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신문왕으로서는 ‘庫門外庭’을 사천왕사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겼을 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왕은 사천왕사가 문무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 여기서는 이 점을 각별히 강조해 두고 싶다.

66) 『三國遺事』 紀異2 萬波息笛條.

67)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p. 54~57.

68) 그런 측면에서 문무왕 4년(664) 멋대로 財貨와 田地를 佛事に 회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참고가 된다.

69)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8, 1984, pp. 108~112.

70) 『三國史記』38 職官志(上).

71)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의 機能」 『韓國史研究』43, 1983, p. 90 ; 채상식, 앞

성전사원이 제 기능을 하는 한 사천왕사가 제일급의 호국사찰로서 자리하였음을 뜻한다. 사천왕사가 가장 먼저 성전사원으로 지목된 것이므로 이후의 사찰은 차라리 그를 보좌하여 주는 기능을 하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사천왕사는 통일기 특히 신문왕대부터 호국사찰의 중핵이었다. 신라 불교정책의 근간이 바뀐 것이었다. 이는 낭산이 명실상부하게 수미산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사정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듯싶다. 역으로 낭산이 수미산으로 인식됨으로써 호국불교의 중심은 저절로 황룡사로부터 사천왕사로 옮겨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불국토 신라를 지켜주는 기능을 한 곳이 낭산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천왕사가 중심이었다. 사천왕사를 창건한 것은 문무왕으로서 그를 바탕으로 신라 국토, 불국토를 지켜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문무왕대에 이르러 사천왕사가 건립되고 신문왕이 그곳을 화장터로 삼게 됨으로써 낭산은 새로운 호국불교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다만 이후 교학불교, 신앙체계의 변화 속에 또 다른 새 불국토관이 점점 싹트고 있었다. 그에 따라 자연히 낭산의 성격도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소지를 보이고 있었다.

## V. 맺음 말

『舊唐書』 신라전에는 신라인들이 ‘好祭山神’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물론 산신을 대상으로 삼아 즐겨 제사 지내는 행위가 꼭 신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닐진대 그를 유독 特記하였던 사실은 거기에 각별한 요소가 깃들여 있었기 때문이겠다. 어쩌면 삼국통일 이후 大祀를 지낸 대상인 三山, 中祀의 수위에 위치한 五岳을 놓고서 나온 표현일 듯싶다.

그런데 삼산과 오악은 오로지 줄곧 산신하고만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산악숭배의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러하였을지 몰라도 불교가 공인·정착·확산되면서 이와도 굳게 결합해져 갔다. 토착신앙과 불교는 일체로 융합되어진 것이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후자가 점점 우세해져 마침내 전자는 그 하위로 포섭되어졌을 터이다. 그와 같은 양상은 신라의 산악숭배 가운데 가장 중핵적 위치를 차지한 낭산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낭산은 신성시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변모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테면 실

---

의 논문, p. 103.

성왕 12년, 선덕여왕의 무덤 조영, 사천왕사의 창건 등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내재된 성격은 약간씩이라도 바뀌어졌던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문무왕대에 사천왕사가 완공되어 신라 호국 도량의 본산으로 자리함에 따라 낭산의 성격도 확연히 달라졌다. 낭산 자체가 단순한 산악신앙의 범위를 뛰어넘어 불교적 세계관인 수미산으로 인식되었음은 그를 뚜렷이 보여 준다. 낭산 주변에 무덤이나 사찰 등 신앙과 연관된 기념물이 적지 않게 들어서는 것도 그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현장에서 실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은 그를 여지없이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논문투고일 : 7월 16일, 논문심사완료일 : 7월 31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1일]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삼국사기』, 『삼국유사』

2. 단행본 및 저서

- 慶州市·新羅文化宣揚會, 『新羅와 狼山』, 1996.
- 곽승훈, 『新羅金石文研究』, 한국사학, 2006.
- 김재경, 『신라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연구』, 民族社, 2007.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 盧重國,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新羅狼山 遺蹟調査』, 1985.

3. 논문류

- 金福順, 「義湘과 皇福寺」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 今西龍, 「新羅文武王陵碑に就きて」 『新羅史研究』, 圖書刊行會, 1933.
- 辛鍾遠, 「三國遺事 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 가지 問題」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 尹善泰, 「新羅 中代의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大·中·小祀의 祭場과 관련하여-」 『新羅 金石文의 현황과 과제』(신라문화재학술회의논문집 23), 2002.
- 李基白, 「三國時代 佛教 受容과 그 社會的 意義」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6.
-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李泳鎬, 「新羅中代 王室寺院의 官寺的 機能」 『韓國史研究』43, 1983.
- 李仁哲, 「신라 上代의 佛寺造營과 그 社會·經濟的 基盤」 『白山學報』52, 1999 ; 『신

라의 불교사원』, 백산자료원, 2003.

- 朱甫噉,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
- 朱甫噉, 「통일신라의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木簡과 文字』9, 2012.
- 蔡尙植, 「新羅統一期의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8, 1984.
- 洪思俊, 「新羅文武王陵碑斷碑追記」 『考古美術』3-9호, 1962.
- 洪淳昶,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 民俗의 新研究』(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4), 1983.
- 黃壽永, 「新羅 狼山の 陵旨塔에 대하여」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17), 1996.
- 姜友邦, 「陵旨塔 四方佛 塑造像의 考察」 『新羅와 狼山』(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17), 1996.